

## 전북 핵심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로 '탄력'

### 도, 국정과제 대응 보고회 열어 새만금·전주 올림픽 등 점검 정부·정치권 전략적 공조 강화

전북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전략 수립에 본격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국정과제 분석 대응 보고회를 주재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북 핵심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북의 핵심과제를 담당수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도정 전반의 발전 동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논리도 보강할 예정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전북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센드박스, 새만금 SOC 확충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농생명 K-푸드 산업 육성 ▲광역교통 물류망 확충 ▲AI 바이오 방산 등 첨단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의료 복지 인프라 강화 ▲재난 안전 사회적 포용 등이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구체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전략적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와 연관된 기존사업은 논리 보강 등을 재점검하고 국정과제 방향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 대

응 범위를 확대, 사업별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각 실국과의 협력하에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기조와 전략 키워드를 도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안을 수립한다.

이을러 국책연구원의 공조로 부처별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논리도 보강할 예정이다. 정책세미나 개최와 전문 연구과제 수

행을 통해 기존 공약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중앙부처 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도와 지역 정치권이 수개월간 전방위 설득과 협의를 거쳐 얻어낸 성과"라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핵심 사업들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후속조치 또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단장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가동하고, 서울중앙협력본부 전담상황실을 운영하며 핵심 정책 아젠다 발굴과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행정, 경제부지사 등 도정 지휘부를 중심으로 이한주 위원장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및 의원 등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장정철 기자



스마트 안전도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박차'

전북자치도는 국토부 주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최근 잇따라 선정됐다. 사진은 군산시의 스마트 안전도시 계획도. <사진=군산시>

## 박지원 "地選 전 합당해야 조국혁신당 미래 있다"

### 박지원 의원 '통합 압박' 주목 조국 "내부 논의가 먼저 합당 최선인가 생각해봐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으로 정치계로 돌아선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된다고 밝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조국당에서는 절대 합당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합당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 구단인 박 의원의 지속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조국혁신당도 미래가 있다"고 조국당을 압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의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박 의원은 "합당 후 조국 전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그 때 결정할 문제"라면서 직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광역 단체장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는



박지원 의원

부산이 아닌 광주시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통합 이유로 "결국 '민주세력'이 함께 뭉쳐서 지방선거

도, 총선도, 정권재창출도 하자'는 것"이라며 "거기에 조국 운명을 걸어야 하지,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조국의 정치가 아니고, 국민도 그런 정치는 안 바란다"며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

조 전 대표는 박 의원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부인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예컨대 박지원 의원님은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도 "지금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게, 조국혁신당은 공적 정당인데 내부 논의를 먼저 해야 하고, 또 합당이 최선인가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합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내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주장이 강한 편이어서, 조국당이 어떤 결정을 하게될지는 미지수이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스마트도시 조성 '순항'...정부 공모 잇따라 선정

### 무주·순창 스마트 안전망 구축 군산 첨단교통·전주 거점형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최근 잇따라 선정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을 통한 스마트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 무주군, 순창군이 선정되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은 범죄, 화재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각 시군의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 수집하고, 수집된 다른 시군 데이터를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마련된다.

또 군산시는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돼 총 24억 원(국비 12억, 지방비 12억)의 예산을 투입, 2026년까지 스마트 횡단보도, 실시간

신호제어 신호개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집중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정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사전컨설팅과 국토부 장관 공모사업 선정 건의 등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19일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된 전주시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24억원(국비 160억, 지방비 160억, 민간 4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장정철 기자

이번 사업에서는 찾아가는 생활SOC, 초개인화 AI 헬스케어, AI 기반 도시안전 등 12개 스마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8월 중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초까지 시설공사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 선정 성과를 기반으로, 전주를 스마트도시 거점으로 삼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우수사례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16주기 추모

### 민주당 전북도당, 성명 통해 회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별,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이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리움과 존경은 더욱 깊어지고, 그분이 남긴 정신은 여전히 현재의 정치에 살아 있다"고 애도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죽음의 위협과 육고, 망명까지 감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냈고 IMF라는 국가적 절망 앞에서 국민과 고통을 나누며 조기극복을 이끌어냈다"며 "IT강국 문화강국의 토대를 세우 미래를 준비한 대동

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행동하는 양심시 되자는 그의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북돋워준 시대의 명령이었다"며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행동하는 양심은 지금도 살아 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선언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다짐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道, '전북관광' 정체성 담은 브랜드 구축 총력

## '특별자치도' 맞춤형 브랜드 개발 관광자원 분석 차별화 전략 수립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 참여 유도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개발에 착수, 전북관광의 매력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8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부터 디자인 개발, 관리 체계 마련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관광브랜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광브랜드 개발을 통해 전북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슬로건과 BI(Brand Identity) 구축으로 전북관광 경쟁력과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무수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 관광브랜드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전북 핵심 관광자원 및 관광정책 분석을 통한 브랜드 정체성 확립 ▲브랜드 차별화 전략 제시 ▲관광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추

진 ▲전북 관광브랜드 디자인(슬로건 및 BI) 개발 ▲전북 관광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도는 '함께 만드는 관광브랜드'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전북관광의 정체성과 매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 및 BI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도민·관광객·전문가 등의 선호도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브랜드는 기본형과 응용형 디

자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관광안내소 표지판·홍보물·기념품·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는 관광브랜드는 단순한 상자를 넘어 전북관광의 미래 방향성과 차별성을 담은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김관영 도지사 "도정 방향 국정과제 맞춰 재정비"

## 국정 기조 맞춘 정책 발굴 지시 추경·민생사업 편성 준비 당부 글로벌대학 공모 성과 달성 독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 정책의 큰 틀이 잡혀가는 흐름 속에서 체계적인 정책 설계로 도정 방향을 재정비하자"고 18일 말했다.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이는 새 정부 철학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도정 발전의 기회를 선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단체에 접어들고 있는 국가예산에 대해서도 "지역 핵심사업 국비확보의 마지막 승부처"라며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제2회 추경과 관련, "정부추경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처럼 이에 맞춰 민생 핵심사업이 편성될 수 있게 신경쓰고, 철저한 사전절차 준비로 필수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3년 연속 지정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대학과 관련해 "이번 공모 결과는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훈련"이라며, "실전과 같은 연습을 통해 위기 상황 대



2025년 을지연습이 18일 실시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역량을 끌어올리고 연습기간 동안 공식 세를 갖춰줄 것"을 지시했다. 기강 확립에 적극 나서 철저한 준비태 /장정철 기자

# 윤준병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에 낙인" 개선 촉구

## 카드 표기로 프라이버시 문제 청년층 지원 제외, 확대 필요 1인당 금액 적어 부담 여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분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22년 81억 6,500만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2.3배 늘린 320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 지급받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는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사용시 취약계층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정작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의 확대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을 실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바우처는 가구단위로 지원되고 있는데, 1인가구 4만원, 2인가구 6만 5천원, 3인가구 8만 3천원, 4인가

구 10만원 등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액은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현재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의원

## 전북도의회, 의정지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사무처 직원 전문성 향상 자료수집·조례 입안 등 실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의회사무처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의정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의정민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신규 임용자와 시군 전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제도 법령 이해, 지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파악,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 조례 입안 등 의회 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교육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방의회 전문교육기관 출강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초빙했다. 강사진들은 ▲전북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 ▲지역정책에 대한 국회 입법 방향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 ▲자료수집·분석 기법 ▲자치법규 입안 절차 등 7개 주제, 총 14시간 과정으로 5일간 매일 2~3시간씩 열린 강의를 펼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 확보가 목표"라며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현장학습, 학습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사무처는 문승우 의장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제도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자체 학습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의 K-POP아카데미 시범사업이 14일 성료됐다. <사진=전북도>

## 전북 K-POP 아카데미, 글로벌 관심 속 성료

### 2주간 K-POP 문화 집중 교육 참가자 영상·SNS로 전북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2025 전북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이 14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아카데미는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무려 558명의 청소년이 지원해 28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K-POP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더불어 전북이 새로운 K-컬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인도, 러시아 등 9개국 출신의 청소년 20명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 전북 도내 문화시설에서 집중 교육과정을 거쳤다.

특히 한국 참가자 중에는 전북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출신 3명이 포함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K-문화 체험과 팀별 오디션 등을 통해 K-POP의 진면목을 체험하고 전북의 전통문화까지 접할 수 있었으며 직접 제작한 브이로그, 댄스 영상, 공연 클립 등은 개인 SNS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북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거뒀다. 김성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전북은 전통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의 뿌리를 가진 지역"이라며 "이번 K-POP 아카데미를 통해 K-컬처와 지역문화, 국제교류가 어우러지는 전북형 글로벌 K-콘텐츠산업 전략을 실현하고, 세계인이 전북으로 모여드는 콘텐츠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에어컨 전기세 절약 방법

사용 전 청소하기

안전 점검하기

환기 시켜주기

정속형은 끄다 켜기

인버터형은 계속 틀기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 전주시, '새정부 정책 대응' 국책사업발굴단 운영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  
대학교수·국책연구원 등  
실무중심 전문가로 꾸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위원장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개 새 정부 국정운영방침에 대응한 국책사업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국책사업발굴 계획으로 전주시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책사업발굴 추진단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정연구위원들은 상시 국책사업 발굴을 추진하며, 매년 10여 개 국책사업 발굴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연구원들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전주시 국책사업 발굴을 연구원 중심으로 전주시 행정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굴된 국책사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국책사업발굴단은 광역도시·SOC·안전 분야, 신산업·경제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복지·환경분야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위원장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개 새 정부 국정운영방침에 대응한 국책사업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전주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과별 시 내외의 전문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출연기관 등 국책사업 발굴 실무중심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국책사업발굴단 중점 발굴 방향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거점으로 거

듭날 HW·SW 인프라 구축 △전주시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마련 △체류형 K-컬처 중심도시로서의 대전환 기반 마련 △탄소중립 산업경제 전환 선도도시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도시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연구원은 5급 3특에서의 전주시

역할과 인공지능 대전환, 피지컬AI 대응, 탄소·수소·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의 융합 고도화, 글로벌 소프트웨어, 한류콘텐츠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역성장 엔진 등 국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5급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가리키며, 3특은 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새정부는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전주시 혁신성장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전주시 혁신을 선도할 사업발굴을 수행하는 등 전주시의 싱크뱅크(Think Bank)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돌입

비상대응 태세 점검

전주시는 18일 오전 6시 '2025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 또는 국가 위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전 직원의 신속한 응수 및 대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날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을지연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025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전국 단위

훈련이다. 훈련은 지자체뿐 아니라 군·경 및 주요 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기관 소산이동 △민방공 훈련 등 실전과 대응한 훈련을 진행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 안전과 행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을지연습을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대학생·청년들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9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장학재단서 대출이자 전액 지원

전주시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주시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6학기 이내)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2025년 상반기에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재학, 휴학,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전주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자격 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전주시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을 향후 12월까지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 완료 후 오는 12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간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발생한 이차액을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형태로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그간 전주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더해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한 데 이어, 올 상반기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졸업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한 바 있다"며 "전주시 청년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개최

총상금 150만 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의 다양한 매력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활용해 담아내는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짧은 영상) 공모전'을 1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타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수상한 이력이 없는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새만금의 매력을 주제로 6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하여 고화질(Full HD) 엠피포(MP4)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은 150만 원으로 창의성, 주제 적합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명(5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20만 원) △우수상 3명(각 10만 원) △도전상 10명(각 3만 원) 등 총 16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블로그 또는 전자우편(smngstory@naver.com)으로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의회,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한상인 교수 초청  
문화·경제·스포츠 교류 방안 모색

전주시의회의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문화·경제·스포츠 교류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국 의원, 송영진 의원 주최로 18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 초청된 전 프랑스 국립 파리대 한상인 교수는 문화·경제·스포츠 분야 협력 과제와 국제 교류 방안을 제안했다.

송영진 의원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주 음식과 프랑스 와인 결합을 통한 관광·미식 콘텐츠 개발 △파리 '그



랑 파리' 계획과 오세르 지역의 친환경 수소 산업 전략 △스포츠 관광 및 팬 문화 활성화 △국제 수준의 복합 스포츠 시

설 구축과 활용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영진 의원은 "전주와 파리는 다른 대륙에 있지만 풍부한 문화유산과 미식 전통, 팬 문화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진다면 전주의 정체성을 살린 경제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국 부위원장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한층 넓어질 기대한다"며 "문화경제위원회도 문화·경제·스포츠 전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진흥원, '전북 가상융합 투자유치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추진

가상융합산업 유망기업 대상  
IR 프로그램 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이 '전북 가상융합 투자유치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업은 운영사인 와이엔아이(주)와 선정기업 '썬잇', '올모스트웬웨이즈', 진흥원이 협력해 지역 가상융합 산업 투자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주)썬잇'과 '올모스트웬웨이즈'는 지난 7월 3주간의 모집공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썬잇'은 첨단 AI 비전을 활용한 실시간 평가시스템과 심각형 XR 군현현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태국·말레이시아)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올모스트웬웨이즈'는 '케이타운걸즈' 프로그램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기업별 1:1 현장 진단 및 전문가 매칭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유치 멘토링 △IR 스피칭 트레이닝 △IR DECK 제작 지원 △1~3차 IR 데모데이

발표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콘텐츠 및 시드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운영사인 와이엔아이(주)는 국내·외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 서울 분사와 광주·대전·제주 등 국내 지사, 태국·베트남·중국·스위스 등 해외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9개사만 존재하는 태국 TIPS 운영사로도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 디지털콘텐츠·스포츠·게임 분야에 특화돼 매년 6~7개사 이상 TIPS에 추천·투자하고 있다.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가상융합 전문인력 양성교육 △가상융합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운영 등 지역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화재진압한 주민에 소화기 보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피해를 막은 상가 주민 4명에게 소화기를 18일 보상했다. 소화기 보상은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히 불길을 잡은 시민들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점포 주민들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다.

이날 사용된 소화기는 총 6대로 초기 대응 덕분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재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지

4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상가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에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화재를 막아준 것은 공동체 의식의 소중한 분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참여에 부응하도록 소방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틱톡과 외국인 고객 공략 나서

## 외국인 특화 생활·금융 플랫폼 '브라보코리아' 글로벌마케팅 협약 체결

전북은행 '브라보코리아( Bravo Korea)'가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과 손잡고 외국인 고객 확대에 나선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4일 틱톡코리아(대표 매티 린)와 글로벌마케팅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틱톡의 글로벌 콘텐츠 네트워크와 전북은행의 금융·생활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외국인 고객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브라보코리아( Bravo Korea)'는 전북은행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특화 생활·금융 플랫폼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티븐 린

문서를 활용한 '브라보코리아' 회원 가입 마케팅 콘텐츠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공동 이벤트 기획 △ 해외(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신규 마케팅 컨설팅 △글로벌 제휴 네트워크 공유 및 연계 협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틱톡플랫폼 인플루언서와 연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브라보코리아' 관련 콘텐츠를 제작·확산해 베트남을 시작으로 중국 등 주요 국가로 인플루언서 협업 범위를 확대해 해외 거주 잠재 고객층과의 접점도 넓힐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틱톡코리아와의 협력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바이럴 확산과 외국인 고객 유입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브라보코리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특화 금융·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매티 린 틱톡코리아 대표는 "틱톡은



전북은행 '브라보코리아'가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과 손잡고 외국인 고객 확대에 나선다.

전 세계 이용자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창의적 플랫폼"이라며 "브라보코리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인 고객이 생활·금융 혜택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사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하반기부터 틱톡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하고, 브라보코리아 신규 가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 북전주농협-농협전주시지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

### 쌀 소비·건강한습관 유도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은 '아침밥 먹기' 홍보 캠페인에 한창이다.

'아침밥 먹기'는 18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서 지역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기섭 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 이우광 북전주농협 조합장, 박병철 전북농협노동조합 위원장, 하양진 농협전주시지부장, 최승용 농협은행 효자동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상하수도본부 방문 시민인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주 쌀 및 우리 쌀로 만든 떡과 식혜를 나눠주며 '아침밥 챙겨 드시고, 건강한 하루 챙기세요!' 아침밥 먹기 동참을 유도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하루의 시작, 아침밥은 단순한 쌀 소비를 넘어 가족 간의 정서적 공감과 균형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

농민 정성이 깃든 우리 쌀 소비와 든든한 하루를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예수병원, 도서지역 찾아 의료봉사 펼쳐

### 의료선교부·의료협력단 전남 신안서 무료 진료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 국내의료선교부와 국제의료협력단(PMCD)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복지회관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예수병원 의사 3명, 전두누기과외과연합의원 이석재 원장 등 28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활동이 전개된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곳으로 이날 지역민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 지역은 유인도 5개와 무인도 30개로 이뤄진 도서 지대로, 신의면 상태도와 하

태도를 좌우 제방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취약하다.

의료진은 내과, 외과 진료과목에서 110명 군민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상담과 100여 명에게 수액 치료를 진행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 지도를 실시해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송재선 예수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의료봉사를 준비했다"며 "섬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유인도 5개와 무인도 30개로 이뤄진 도서 지대로, 신의면 상태도와 하 /김은지 기자

## 농촌진흥청, 유관 기관 협력 '농기계 안전 교육'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해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은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과 연계해 전달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이용, 농기계 안전 반사 장치 활용, 예초기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반사지(판), 야광 지팡이, 야광 반사 밴드를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

한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8일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련된 농기계 전기용품과 정과 연계해 진행했고, 9월 30일까지 총 3차례 더 연계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9월에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9-2023년에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13.1%)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의 약 9배 수준이었다.

특히 농반기인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농기계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교통법규 준수, 등화 장치 부착 등 기초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크다"라며 "농촌지역 교통안전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이 협력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김은지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현장 발길

## 취임 첫 행보...병해충 사전 예방·피해 경감 전력 의지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7일 취임 첫 행보로 시설 토마토재배 농가를 방문해 '토마토빨나방'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병해충의 사전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농업연구 역량을 토대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토마토빨나방은 토마토, 가지, 고추, 감자 등 가지과(科) 채소류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검역 해충이다.

발육 최적 온도는 30도(℃)로 고온일수록 세대 기간이 짧아져 번식 속도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을수록 유충 생존율이 증가한다.

특히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자라면서 줄기, 과실 등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상

품성을 떨어뜨린다. 발생 초기에 방제 시기를 놓쳐 유충 밀도가 높아지면 농가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성충 포획 장치(페로몬 트랩)로 상시 예찰하고, 방충망·끈끈이트랩 또는 교미교란제 등을 설치해 복합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이승돈 청장은 친환경 재배 농가는 관행 재배 농가와 달리 방제 약제를 쉽게 활용할 수 없고 방제 비용 부담 등으로 토마토빨나방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현재 농촌진흥청이 보급 중인 토마토빨나방 친환경 관리 기술과 방제 물품 지원 상황을 안내했다.

이 청장은 "토마토 입식 초기에 유충의 발육을 억제하는 유기농업 자재, 성충 간 성충 간 교미를 억제하는 교란제, 천적 등을 종합 활용하면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연구와 방제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나아가 현장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봄 작기가 시작된 올 3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7일 취임 첫 행보로 시설 토마토재배 농가를 방문해 '토마토빨나방'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월부터 전국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물품 지원과 방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확산 차단에 주력해 왔다. 지난 7월부터는 가을 작기를 앞둔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방제 물품을 지원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친환경 토마토 재배 농가를 위해 토마토빨나방 방

제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방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부터 관내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교육과 영농지도, 농가별 방제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친환경 토마토 재배 농가를 위해 토마토빨나방 방 /김은지 기자

# 부안농협-농협생명 전북총국, 부안군에 쌀 600포대 기부

## 소외계층에 먹거리 지원 쌀 소비 부진 농업인 도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장광수)은 18일 부안군청에서 쌀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철 부안농협 조합장과 장광수 농협생명 전북총국장,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영환 본부장,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조상완 지부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소외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부된 쌀 총 600포대는(2천만원 상당)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광수 전북총국장은 "농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해 쌀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농협생명은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장광수)은 18일 부안군청에서 쌀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 전평신협-따숨지역아동센터, '2025년 어부바멘토링' 성료

## 신협-아동복지시설 결연 아동 전전 성장 도와

전평신협(이사장 김병학)은 따숨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경순)와 진행한 '2025년 신협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이 지난 14일 7회기를 끝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신협 어부바멘토링은 전국의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을 통해 신협

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돼 건전한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단위조합 신협, 아동복지시설이 10년째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전 7시부터 10시 간 동안 전평신협 멘토 2명과 따숨지역 아동센터 아동 30명, 인솔교사 10명이 참석해 대화회복물과 대전오일드

를 탐방했다.

대화회복물과 견학은 금융교육의 연장선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들은 화폐의 개념과 역사 속 시대별 화폐 모습을 학습했다.

전평신협과 따숨지역아동센터는 5월부터 협약을 체결해 △신협견학, 금융업무체험 △금융회사의 종류 및 은행알기 △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차이알기 △따숨지역아동센터 노래만들기(작사, 작곡, 안무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을 끝으로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을 종결했다. 김병학 이사장은 "신협의 주요 분야인 금융·경제교육과 협동, 나눔정신을 신협 임직원이 멘토가 돼 아동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어부바멘토링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부바멘토링을 비롯 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이와 함께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김은지 기자

# 전북대, 글로벌 PBL 통한 미래 산업 인재 양성

## 실무·글로벌 역량 강화 AKCSE와 MOU 체결 지속 가능 국제 협력 발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 주력 산업을 선도할 미래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해외 연구현장에 직접 파견, 실무와 국제 협력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교육 모델을 시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RISE사업단(단장 손정민)은 지난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캘거리대학교(University of Calgary)에서 '글로벌 실험실 파견 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첨단 산업기술과 글로벌 연구환경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주

력 산업인 생명·전환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생명, 첨단소재 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3개 전공 분야의 3~4학년 및 대학원생 14명이 선발됐다. 학생들은 Advanced Biofabrication Laboratory, Nano/Micro-Sensors and Sensing Systems Laboratory, Intelligent Automation Research Laboratory 등에서 △3D 바이오프린팅 △나노바이오 센서 △자율주행 로봇 구축 등 첨단 분야의 현장을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산업 맞춤형 역량을 쌓았다.

특별 자율 프로젝트, 기업체 방문, 그룹별 실험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연구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연구진과 산업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는



멘토링을 통해 진로 탐색과 연구 동기도 제고했다.

특히 RISE사업단은 이번을 계기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AKCSE)와 교육·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국제 교류와 공동 연구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손정민 전북대 RISE사업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실무 역량과 국제 협력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 축제 연계 관광 상품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경윤)이 재한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북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축제 연계형 외국인 관광 상품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를 위해 재단은 전북의 대표 축제인 전주월드뮤직페스티벌(JUMF)과 전주 관광을 연계해 프로그램 운영했다.

약 60명의 재한 외국인 참가자들

은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와 개사 등 전주 시내를 둘러본 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JUMF 무대를 통해 아티스트의 열정적인 공연을 관람했다.

이튿날에는 전주 한옥마을, 전통성당 등 전주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했다.

재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반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실N치즈축제,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주요 축제와 연계한 내·외국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교육 현장 비상 대응 능력 강화

## 21일까지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 을지연습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발생 시 지속적인 교육 기능 유지와 학생·교직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실시하는 국가 총력전 연습으로, 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모든 공무원이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18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 대행 주재 최초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중요문서 반출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실제 상황조치 연습으로 수준 높은 비상 대비 태세를 구축한다.

특히 전시 상황시 예상되는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부서별 토의 및 결과 제출을 통해 내실있는 을지연습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는 대피소 찾기·방독면 착용 등 교육현장에서 대응 가능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모든 훈련과 교육은 실제 행동 위주로 진행해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 위기관

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

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감사관실,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상호존중·청렴문화 확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원 간 청렴 소통과 갑질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감사관실'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관실 카카오톡 채널은 △청렴 소식 및 유익한 감사정보 제공 △자주 묻는 질문(FAQ) 챗봇 운영 △갑질 예방 상담 및 신고 안내(운영시간: 매주 목·금요일 13:00~17:00)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 소속 기관과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감사관실'을 검색해 친구 추가하면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상호 존중과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이번 카카오톡 채널이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갑질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친구 추가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교원임용시험 공개 설명회 '호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창조 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원임용시험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와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임용시험 절차와 일정 소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와 합격자의 생생한 경험 영상 상영 △원서 접수용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와 응시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시청각 자료로 자체 제작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영

상은 응시 예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합격자의 실제 경험을 담은 '합격을 말하다' 영상 상영 등 다른 프로그램들도 응시예정자 등 참석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응시 예정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제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정하고 교원임용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호원대-중국 동방대, 글로벌 인재양성 '맞손'

### 한중 문화 교류 모델 제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지난 15일 10시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동방대학교 예술대학과의 업무협약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논의를 동방대 예술대학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는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상호 실습 및 프로젝트 진행 △하얼빈 빙등축제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원대 산학협력단 최부현 부단장(공

성 및 교류를 통해 동방대 예술대학이 보유한 세계적인 빙상예술과 호원대의 K-컬처가 융합해 세계 3대 겨울 축제인 하얼빈 빙등제에 실질적인 결과물을 완성시키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호원대학교와 동방대 예술대학의 협약은 양교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양교가 선보일 창의적인 협업 결과물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 폭염 속, 냉방병 주의보

### 냉방병증상

- ◆ 피로감
- ◆ 소화불량
- ◆ 집중력저하
- ◆ 설사
- ◆ 두통
- ◆ 근육통 등
- ◆ 오한

### 냉방병 예방 하기

- 적정 온도 유지**  
여름철적정 실내온도 25도 내외  
실내외 온도차 5도 이하 유지
- 주기적 환기**  
에어컨 일정 시간 가동 후 주기적으로 환기
- 바람 방향 조정**  
에어컨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조심

### 정읍시, 신태인시장 빈 점포·창고 신규 입점자 29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태인시장 빈 점포와 창고 신규 입점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점포 4개소와 창고 3개소다.

점포에 입점하려면 1·2·3차 식품이나 기타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해야 하며, 창고는 기존 입점자와 신규 입점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성인이어야 하고, 지방세와 국제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입점자를 선정한다.

입점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2층 일차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태인시장은 지역 주민의 오랜 생활 중심지이자 잠재력 있는 유통기반을 갖춘 전통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규 입점자 모집을 통해 빈 점포가 새롭게 채워지고, 더 많은 주민이 찾는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영어 독서 문화강좌 운영 21일 153명 선착순 선발

익산시가 독서·문화 강화로 시민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고,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힌다.

시는 익산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ICEL)에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영어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유아,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총 15개 반, 153명을 모집하며, 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통해 몰입도 높은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21일 영어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1차 강좌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13주간, 2차 강좌는 12월 3주간 진행된다.

유아반(6~7세)은 노래와 동화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입문과정 중심으로 5개 반이 운영된다.

초등반은 영어책 읽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단계에 따라 7개 반이 진행되고, 성인반은 원어민 회화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하반기 강좌는 상반기와 연계해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된다"며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북클럽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29~31일까지 K-관광섬 필카로드 소문내기 이벤트 진행

군산시가 운영하는 '고군산섬잇길'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gogunsan\_seomitgil)에서 K-관광섬 8월 온라인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를 진행한다.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정자동 선착장에서 열리며, 고군산군도의 K-관광섬인 말도, 명도, 방축도로 떠나는 관광객 중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나눠주는 프로그램이다.

필름카메라를 받은 방문객은 여행 중 K-관광섬의 아름다운 풍경과 포토스팟, 동행한 친구와 가족의 모습 등을 직접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촬영이 끝난 필름은 회수해 디지털화 과정을 거친 후 인화된 사진으로 방문객에게 다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해 온라인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를 함께 추진해 K-관광섬과 고군산섬 잇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편의점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9월 첫째 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청년정책 전국 인정

### '청년친화환경대상' 종합대상 영예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

익산시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으며,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입증했다.

익산시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2025년 제8회 청년친화환경대상'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친화환경대상은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반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표창하는 상이다. 2018년 제1회 시상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수상은 익산시가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청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익산시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으며,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입증했다. <사진=익산시>

고용 지원 △청년창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청년주거 부담 완화 정책 △문화·여가·소통 공간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익산시는 지난 7월 청년경제국과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청년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청년이 행복해야 도시가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청년과 함께 정책을 설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위대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시민 목소리 시정에 담는다

### 새 시민소통위원회 출범 생활불편 해소·제도개선

정읍시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소통위원회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와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재구성은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감 있는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새롭게 출범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시청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의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활불편 해소와 제도개선 등 시민생



정읍시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사진=정읍시>

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공간·소통창구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 행정을 이어

주는 가교로서, 분야별 시정 현안에 대한 양방향 소통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정읍 웹툰 공모전, 전국 규모 대회 자리매김

### 응모작역대최다61편기록 '겨울그리고겨울'대상수상

제3회 정읍 웹툰 공모전이 역대 최다인 61편의 응모작을 기록하며 전국 규모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공모전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78일간 진행됐으며, 2023년 1회 37편, 2024년 2회 39편에 비해 출품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남 완도,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이 접수돼 정읍을 주제로 한 창작 웹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전문가들의 2차 심사를 거쳐 총 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1894년 조선 말기 탐관오리의 횡포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그린 '겨울그리고겨울'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구절초 어머니를 위한 이야기', 우수상은 '정읍에서 다시 봄과

'갈재에 머문 산새'가 각각 차지했다.

시는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정읍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는 1~3회 상위 수상작을 묶은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온·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우수 작품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9월 1일까지 '브랜드데이' 참가자 모집

### 내달 26~27일 열려

### 체험부스공연자등 총 46팀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민준)은 오는 9월 26일~27일 구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군산문화관광재단 브랜드데이'에 참여할 △벼룩시장(플리마켓)·체험부스 운영자 △거가공연(버스킹)·메인무대 공연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시민 참여 중심의 문화관광 행사 활성화와 지역 창작자·예술인 활동 무대 확대를 목표로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모집 규모는 △벼룩시장(플리마켓) 16팀 △체험부스 6팀 △메인무대 공연 10팀 △버스킹 공연 14팀 등 총 46개 분

이다.

공연 부문은 재단 사업참여자 30%, 일반참여자 70% 비율로 선발하며, 대중음악·전통음악·클래식·무용·퍼포먼스 등 장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8월 18일~9월 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재단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다.

선정 절차는 분야별 자격요건 심사 후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공연자 추첨은 9월 4일, 벼룩시장(플리마켓)·체험부스 운영자 추첨은 9월 5일 재단 상영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



군산시가 9월 1일까지 '브랜드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지송길 기자>

## 미식도시 익산, 요리 축제 참가자 모집

### 총상금 1억원 30일까지 접수

미식도시 익산에서 총상금 1억원 규모의 특별한 요리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NS 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에서 진행되는 요리경연대회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NS 푸드페스타는 익산시와 NS 홈쇼핑이 공동 주최하며,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린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요리경연대회는 △미식 간편식 △조리 전공 대학생 △아빠와

자녀 △글로벌 라면 등으로 나눠본선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예선을 거쳐 본선은 축제 현장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셰프, 식품 전문가, 시민평가단이 참여해 창의성·맛·시각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미식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요리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2025 을지연습' 전시 대비 태세 점검

### 전시 대비 태세 점검

정읍시는 18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 을지연습'에서 비상소집과 기관 소산 훈련을 연이어 진행하며 전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6시에 진행된 '2025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은 공무원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전쟁 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등 응소 제외자 94명을 제외한 응소대상자 1070명 전원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응소하며 철저한 비상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정부기관 소산·이동 훈련'이 이어졌다. 전시 상황에서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인

력과 장비, 문서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절차를 실습한 것으로, 5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전시 행정 수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위기관리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합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훈련과 비상대비계획의 실행성 검토, 기관별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학수 시장은 "을지연습을 실제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 경영실습 임대농장,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 '톡톡'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미래 농업인 발전 도모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2024~2025년 성과 평가회를 열고,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작기 경영 자료 분석 결과, 딸기를 재배한 농가는 약 9,500만 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그 외 농가들도 평균 8,000만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야면 수

림로 일원에 7,965㎡ 규모의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 5개소를 조성했으며, 현재 5팀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해 가지, 오이, 딸기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임대농장은 3년간의 경영실습 기간 동안 스마트팜 환경관리 시스템 운용, 전문 재배 컨설팅, 맞춤형 연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우유 기술보급과장은 "스마트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실천 경영 경험을 제공해 향후 창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 '솔로 이리악', 전국 미혼남녀 관심 집중

### 전북 청년 아이디어 사업 청년 교류·지역 관광 활성화

익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색 만남 행사인 전국 미혼남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익산시는 용안면 청년단체 '여의주협의회(대표 도수빈)'가 주관하는 청년친화 행사 '솔로 이리악'이 1기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솔로 이리악'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사업에 선정돼 익산시와 전북자치도가 공동 지원한다. 미혼 청년남녀의 만남과 인연을 이어주는 장을 마련해 청년 교류와 지역 관광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행사는 지난 16~17일 1기를 시작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매주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총 4회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익산 청년시공에서 첫 만남을 가진 뒤 용안리고을, 공공공사장, 용안생태습지, 고도소 세트장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방문한다. 이어 커플 런닝맨, 커플 요리대회, 감성산책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익산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가 전국적인 관심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고창군, 에스비푸드 연내 구축 마무리

## 고추종합유통센터 투명하게 매각...본질 왜곡 주장 일축

고창군은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에스비푸드 관련, “연내 공장설비 구축 완료 등에 문제가 없다”며 최근 이른바 ‘짜라시’ 형태로 떠돌고 있는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군은 고추종합유통센터 건물 매각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적법한 행정절차로 매매계약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령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했고, 이는 고창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되고 있다.

㈜에스비푸드는 당초 운영 효율이 떨어지던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고추종합유통센터를 매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기업이다.

지난해 7월 매각대금을 완납했고, 1차 설비 제작을 위한 계약을 마치고 공장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고추종합유통센터 내 저온창고도 에스비푸드가 매입해 직접 소유·관리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이 에스비푸드에 매각한 고추종합유통센터는 건립 이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건물만 노후화 되면서 처치 곤란을 겪었던 건물이었다.

심덕섭 군수 취임 이후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기업매각이 추진됐고, 수도권 소재 중견 식품원료 기업인 에스비푸드가 측과 긴밀한 소통 끝에 매각이 이뤄졌다.

특히 매매 계약서에는 ‘30명 채용 또는 조달하는 원자재의 30%를 고창농산물로 구매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업체의 불이행시 고창군이 다시 환매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정도로 계약은 군과 지역의 이익이 최우선됐다.

㈜에스비푸드는 3단계로 나눠 투자를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1차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아 2026년 상반기에는 본격 제품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1차 제조설비에서는 올리год당 및 고구마 효소를 제조하며 고창산 농산물(고구마 800톤, 쌀 1,000톤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3차 설비투자로 알룰로스 제조하고 분무건조기 설비를 구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은 기업의 투자 시간만 일부 조정할 것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계획 변경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없는 억측을 남발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강한 유감을 전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해 가겠다”고 경고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7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

## 2029년까지 단계적 총 35% 재정 건전성·공급 기반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상수도요금을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격년)으로 3회에 걸쳐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8년 이후 7년간 동결해 온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의 격차를 줄여 수도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조치다.

현재 상수도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172원인 반면,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 공급단가는 1,093원으로 요금 현실화

율은 50.32%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74.5%와 비교해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수도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요금 수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15% 인상하고 단계적(격년)으로 2027년 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10%씩 추가 인상한다.

또한 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누진구간을 완화해 실사용자의 부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10월 고지분부터 인상되는 요금을 보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1~10톤)은 톤당 680원에서 780원, 일반용(1~50톤)은

1,350원에서 1,550원, 산업용(1~1,000톤)은 1,070원에서 1,270원으로 부과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급수관 교체 및 개량공사, 배수지 시설 보수유지 등 안정적인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설투자·관리 등에 사용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물가상승과 원가 부담,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중장기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국가 위기관리 단계별 주요 조치상황 점검

## 을지연습 최종상황보고회 군사·정부 연습 상황 공유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최종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초보고회에서는 연습개시상황 보고, 군수의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사·정부 연습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별 주요 조치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을지훈련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으로, 군은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을지연습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실제훈련이 돼야 한다”



부안군은 1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최종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안군>

고 강조하며 “훈련 참가자 모두 전시전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경관보전직불금 45억원 지급

##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 총 2288농가에 지원

부안군은 2025년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총 2288농가에 약 4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계절마다 변화하는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는 농

촌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사업 참여 농가는 재배면적 1ha당 경관은 170만 원, 준경관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총 89개 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각 지구는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 구성해 유채를 비롯한 경관작물과 보리, 밀 등 준경관작물을 함께 재배해 농촌의 다양한 경관을 연출했다.

지난 5월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 면적은 총 2,950ha로 확정됐다.

이번 지원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조기에 지급해 농가들이 내년 재배 준비와 생활 안정을 서두를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의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농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제29회 고창해풍고추축제, 23일 개막

농가·소비자 직거래 장터 등

고창군이 청정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고추를 소재로 ‘제29회 고창해풍고추축제’를 오는 23~24일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이 키운 매운맛, 고창해풍고추’를 주제로 고창군 관내 고추 재배농가와 소비자 간 고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터가 열리고, 고추 할인 쿠폰 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고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해풍고추축제에서 해풍고추와 고창농특산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



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전 현장점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앞두고, 박금남 복지환경국장이 지난 13일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전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국장은 관계 직원에게 리모델링 공사 계획과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을 직접 설명을 듣고, 리모델링 공사 중 학생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으며,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와 철저한 공사 관리를 당부했다.

만경도서관은 자연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문화 휴식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부 공간 재배치, 친환경 소재 활용, 실내 휴식공간 확충 등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곳”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모두가 책과 함께 힐링하는 문화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 ‘변산 비치팸’, 막 내려 관광객 만족도↑

부안군이 2025년 여름을 맞아 시범 운영한 ‘변산 비치팸’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남미 해변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부안의 청정 해변 경관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야간관광을 선보였다.

‘변산 비치팸’은 변산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단순히 잠만 들렀다 떠나는 해수욕객이 아닌 해변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여름철 집중되는 주간 방문객을 분산시키고 야간 시간대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번 운영 결과 행사 기간이 진행될 수록 평일에도 해변을 찾는 야간 방문

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해수욕장을 찾았을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파악됐다.

이번 행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기존의 해변 행사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독창적인 콘셉트 덕분이었다. ‘남미 해변 감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변산 비치팸’은 대형 아자수 장식과 라틴 음악, 재즈 공연이 어우러져 마치 미국의 해변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변산 비치팸은 부안의 천혜의 해변 경관 위에 이국적인 문화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야간관광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부안의 여름밤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청렴정책추진단 성과 공유

## ‘1국·소 1청렴 시책’ 점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6월부터 각 국·소가 추진해 온 ‘1국·소 1청렴 시책’의 추진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치행정의국·사회단체·시민·공무원이 함께하는 ‘3회 청렴 릴레이’ △새만금경제국의 ‘ONE 클린 김제 챌린지’ △북지향국의 ‘청렴 다짐 Tree’ 운영 △도시건

설국의 ‘건설현장 청렴 릴레이 캠페인’ △보건의소의 ‘청렴 마니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보조사업 투명성 강화’ 등 국·소별 특화 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보완 방향이 공유됐다.

정성주 시장은 “각 부서가 혼신을 다해 추진한 시책이 연말까지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며, “간부 공무원 모두가 내가 곧 김제시 청렴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으로 남은 기간 청렴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제19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 23~24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개최

(사)추담판소리보존회(이사장 김세미)가 주관하는 제19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오는 22일 ‘제3회 부안의 품류를 만나다’ 전야제 공연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부안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판소리를 올바르게 지켜온 명인이자 전통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하신 명창 추담 흥택 선생의 업적을 선양, 계승하고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해 열리는 전국 국악 경연대회로 매년 전국 각지에서 150여명의 참가자가 판소리, 고법, 기악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연은 일반부·신인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23일 부분별 예선을 거쳐 24일 본선 및 종합결선이 진행되고, 일반 판소리 부문 대상(국회의장상) 및 고법·기악부문 종합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한 각 부문별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추담판소리보존회 김세미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 전통예술의 맥을 잇는 우수한 인재들이 발굴되고, 국악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전문건설협 간담회 건설산업 활력·업계 소통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시청 도시건설국장실에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제 전문건설협의회 임원과 시 도시건설국장 및 도시과장 등 8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등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관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건설현장 피해 사례와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시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설업 업무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부조리 사례를 공유하며 투명한 건설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정효근 도시건설국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내 건설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30명 대상 진로캠프

고창군가족센터(센터장 정혜숙)는 지난 14~16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진로 탐색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나의 꿈을 찾는 진로캠프’를 운영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진로탐방 및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회적 향상,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첫째 날 서울 롯데월드와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방문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했다.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과의 진로 멘토링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감상하며 또래들과의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정혜숙 센터장은 “이번 진로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정서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가족센터는 진로캠프 외에도 부모 교육,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등 고창군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남원 피움하우스 입주 마감 '36대 1' 경쟁

### 11세대 모집에 401세대 몰려 월 1만 원 임대, 필수품 완비 22일 선발자 발표, 27일 개소식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청년과 신혼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남원 피움하우스' 입주자 모집이 지난 14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11세대 모집에 무려 401세대가 몰리며 경쟁률 36대 1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남원 피움하우스'는 남원형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 브랜드로, 방치된 빈집과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 원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사업이

다. 모든 세대에는 냉방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필수품이 갖춰져 있어 몸만 오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남원시는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자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22일 시청 누리집에 선발자를 발표하고, 27일에는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폭발적인 신청 열기는 치솟는 주거비 속에서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한 남원시의 정책과, 청년층·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맞춤형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남원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수요가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고 △월 최대 16만 원을 지

원하는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월세)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3%를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3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출잔액의 최대 3%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함으로써, 임대주택은 물론 장기적인 주거 안정까지 포괄하는 청년 주거 복지를 완성하게 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 포용 시민 공간으로

### 11월 준공 목표 리모델링 순항 무장애 설계 적용 편의 높여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역사회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원래 장애인에 위한 전용 체육시설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체육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사에서는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출입구에서부터 운동 공간, 탈의실, 샤워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동 동



남원시는 2023년 정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 중인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을 밝혔다. <사진=남원시>

선에 계단이나 단차를 없애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문 폭을 넓히고 손잡이·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이용 편의도 높였다.

이러한 설계는 장애인과 노약자뿐 아니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부상 중인 시민 등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준공 후에는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휠체어 농구, 좌식 배구 등 장애인 특화 종목뿐 아니라, 배드민턴·탁구·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운영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스포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며 지역민 전체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 강천산배 유소년 야구대회, 지역경제 '활력'

### 6일간 108개 팀 전국 대회 성황 3천여명 방문 가족단위 체류 늘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열린 제9회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관하고,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팔덕다용도경기장, 공설운동장, 섬진강체육공원, 생활체육운동장 등 총 8개 구장에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108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무엇보다 대회 기간 동안 약 3,000여 명이 순창을 방문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불었다. 실제로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편의점 등은 대회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방문객들의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참가자들의 체류가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체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순창군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5개의 특설구장을 설치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철

저히 마련했다. 경기장마다 얼음물을 비치하고 무더위 쉼터와 냉방 버스를 운영했으며, 선수 대기실에는 이동식 냉풍기 등을 선수들이 폭염 속에서도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큰 온열사고 없이 모든 경기가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소년 야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눈에 띄는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 종목 중 하나"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은 지역경제와 방문 인구 증진을 위해 스포츠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운주 농촌유학생, 광복 80주년 캠프서 교류

### 부산서 근현대사 문화 캠프 유적지 탐방·진로 탐색 체험

완주군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 맞이 운주농촌유학생센터(센터장 이인옥)와 열린마을농촌유학생센터(센터장 임진희)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역사문화진로체험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운주농촌유학생터 주관으로 열린마을농촌유학생터가 참여해 두 센터 농촌유학생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참가자는 운주농촌유학생 11명, 열린마을농촌유학생 15명, 지도교사 6명 등 총 32명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부산의 근현대사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역사교육을 받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완주군은 운주농촌유학생터, 열린마을농촌유학생센터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역사문화진로체험 캠프'를 운영했다. <사진=완주군>

1일차에는 △임시수도 정부청사 △임시수도기념로 △임시수도기념관(동아대석당박물관) 탐방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모래·갯벌 체험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국립해양박물관 조별 체험 △부산 스키야캠핑 탐승 △바다

저희 마련했다. 경기장마다 얼음물을 비치하고 무더위 쉼터와 냉방 버스를 운영했으며, 선수 대기실에는 이동식 냉풍기 등을 선수들이 폭염 속에서도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큰 온열사고 없이 모든 경기가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소년 야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눈에 띄는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 종목 중 하나"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은 지역경제와 방문 인구 증진을 위해 스포츠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망 카페에서 광복절 3행시 작성·발표가 이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캠프는 교육발전특구 핵심 사업인 '농촌유학'인 재정착지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지난 17일 완주군은 산단 근무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완주군>

# 완주군, 외국인근로자 '어울림봉사단' 발대

### 네팔·베트남·스리랑카 등 50명 구성 정기 봉사활동

네팔·베트남·스리랑카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단을 결성했다.

완주군은 지난 17일 완주외국인지원센터(동창햇살장조센터)에서 완주군가족센터 주관으로 '어울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가족센터장, 더불어사는좋은이웃대표, 외국인근로자 50여 명이 참석해 봉사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어울림봉사단'은 완주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네팔, 베트남, 스

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출신 근로자 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매월 정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네팔 출신으로 봉사단 대표를 맡은 비소 씨는 "완주에서 일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지역을 위해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울림봉사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상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 이행 촉구

### 소·돼지 등 6개월마다 의무 접종 항체 미달 과태료·불이익 강화

완주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관내 모든 소·염소·양돈 농가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 정기접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모든 축산농가는 6개월 주기로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접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구제역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백신 접종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준에는 1차 5두 검사 후 미흡 시 2차 16두 검사를 진행했으나, 개정 이

후에는 1차부터 16두를 검사하고 기준치 미달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최근 실시된 구제역 항체가 검사에서 기준치 미달 농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는 물론 보조사업 우선순위에 서 제외되고 외국인 고용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올해 3월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접종을 실시한 이후 항체유지를 위해 예년 10월이던 하반기 일제접종을 9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군은 기간 내 미접종으로 인한 방역 공백이 없도록 모든 농가가 전두수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군, 축산업 종사자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축 16종·축산시설물 대상

순창군이 가축 피해 보상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보험가입비의 75%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산시설물이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는 △가입신청 △사전 현지확인 △계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재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문화원, 광복 80주년 해방소나무 기념행사

### 막걸리 전통 의식·만세삼창 진행

순창문화원(원장 전인백)은 지난 14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창초등학교 순창객사 앞에 위치한 해방기념비와 해방소나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45년 해방 당시 선현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과 순창의 선비정신을 기리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광희 순창부군수,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순창문화원 회원, 순창항일정신계승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이날 기념식은 순창문화원 박재순 사무국장의 해방기념비와 해방소나무의 역사적 의미 설명으로 문을 열었다.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순창군민들은 급산에서 '나무 중 으뜸'이라 불리는 소나무를 가져와 심으며 해방의 기쁨을 나라사랑 정신의 상징으로 남겼다.

이어 참석자들은 해방소나무에 막걸리를 올리는 전통 의식을 치렀다. 의식 후에는 전인백 순창문화원장의 만세삼창으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제 1회 김병종미술상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

남원시에서 '제1회 김병종 미술상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에 있는 유아 및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예술가를 길러낸 남원에 가치를 담아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화가' 김병종 작가가 고향 남원시에 다수의 작품을 기증하며 시작된 남원시김병종미술관이 연간 16만 명이 찾는 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자리잡은 사례에서 착안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김병종미술상 어린이 공모전'이 아직은 어린 수많은 '생명의 화가'들에게 창작자로서의 영감을 줘 제2의 김병종 작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유아부(5세~7세), 초등학교 저학년부, 고학년부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1명씩 3명을 선정한다. 유아부는 100만원, 초등부는 각 150만원으로 총 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선정작은 '남원시김병종미술관, 품'에 전시된다.

참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남원시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가정위탁아동·부모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체험 활동

완주군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위탁아동과 부모가 함께 만든 도자기를 최근 각 가정에 전달했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가정위탁아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편안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완주 봉강요에서 8가정 23명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가족식사와 사진촬영,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다졌다.

A양의 A양은 "처음 해보는 도자기 체험을 아빠와 함께 해서 재밌었고 그릇을 잘 만든다고 칭찬받아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A양의 친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기쁜 마음으로 아이도 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 흥부골 포도 출하 '박차' 농가 기술·마케팅 지원 강화

지난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탐스럽게 익어간 남원 '흥부골 포도'가 본격 출하돼 소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흥부골 포도는 8월부터 수확을 시작해 9월 말까지 이어진다.

흥부골 포도는 해발 400~500m의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우수하다.

흥부골 포도는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 7회('15~'17년, '20~'23년), 우수상 3회('18~'19년, '24년)를 수상하며 전국 최고 품질을 입증했다.

현재 435농가(2024년 기준 453농가)가 당도 15브릭스 이상, 송이당 무게 380~420g의 규격 포도를 생산·출하하고 있어 최신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다.

2024년 기준 흥부골 포도의 재배면적은 244ha, 연간 유통량은 약 3,110톤이며, 총 조수익은 209억 원에 달한다. 현재 시세는 3kg 기준 35,000원~36,000원 선이다.

철저한 공동선별을 거친 흥부골 포도는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에인' 상표를 달고 대형마트 등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남원시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과장 이남수)와 협력해 착색 불량 예방을 위한 수분관리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포도 재배기술 유튜브 영상을 제작·홍보해 농가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이tron교육 1회, 현장 질의응답 교육 2회를 실시했고, 포도 관리기술 문자메시지를 주 1회 발송하는 등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임실군가족센터, '아버지와 자녀 체험활동' 신청자 모집

임실군가족센터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아버지 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활동' 2회기를 진행한다.

아버지 교육 1회기는 29일 저녁 7시 임실군가족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이중희 공간별교육컨설팅연구소장을 초청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칭찬법 및 인문학적 질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고, 자녀의 마음을 여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회기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회기는 30일 오전 10시에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치즈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은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20명을 모집하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imsil.family.net.or.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 확보

### 관촌 행복누리원 건립 8억 국사봉 전망대 도로열선 3억

임실군이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올 상반기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분야 1개 사업 8억원과 재난 안전 분야 1개 사업 3억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8억원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열선 설치사업 3억원 등이다.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은 관촌면 정사와 체육·공공도서관 공간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생활 혁신 공간인 관촌면 행복누리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청사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관촌면 중심지 거점 기능 확대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실군청

<사진=임실군>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국사봉 전망대 인근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북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옥정호 봉어섬 방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은 그동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를 구

축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심민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독거노인 가정 돌봄 체계 강화

무주군 무풍면이 지역 내 1인 거주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정서, 생활 안정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무풍면에 따르면 지역 내 1인 거주 어르신 가정은 150가구로 월 1회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만나 소통하며 고위험 어르신을 분류하는 등 관리에 정성을 쏟는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을 통해 방문객 건강 및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황조연 무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은 "초고령화 속 1인 거주 어르신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 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연계된 안전망의 구축은 필수적 요소"라며 "어르신들과 접점에 있는 생활관리사 분들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 중심 서비스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을 주고 나아가 1인 거주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마늘재배 농업인 마늘재배 기술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14일과 18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마늘재배 농업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소득작목 마늘 시범사업 추진요령과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늘 품종의 특성과 파종 전·후 생육관리 기술을 다뤘으며, 이어 마늘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위한 두둑성형, 파종 간격, 부직포 종류 등 기계화 재배 기술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겨울철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마늘을 겨울철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군은 앞으로도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마늘 생육 단계별 추가 재배교육을 이어가고, 마늘 대규모 주산지 현장 견학을 통해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농가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금선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마늘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고,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 관광숙박시설 할인 티켓 제공

###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50여 개 관광숙박시설 동참 곤돌라 등 부대시설 30% 할인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앞두고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나뭇리조트, 일성무주리조트 등 무주군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리조트, 펜션) 및 야영장 등 50여 개 업체가 축제 방문객 인센티브 제공에 동참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www.firefly.or.kr) '축제 자료마당-관광객 인센티브' 페이지의 할인 티켓을 출력해서 제시하면 이용 업소별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뭇리조트의 사우나, 수영장 등 부대 시설도 25~30%, 무주덕유산리조트



의 관광 곤돌라, 그린벨리(골프장)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광용 무주반딧불축제지원단 총괄팀장은 "한낮의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생태탐험'부터 한밤의 '신비탐사'까지 무주반딧불축제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체류형 투어를 추천한다"라며 "여러분의 알뜰한 무주 여행을 돕기 위해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에서도 동참해 주시기로 한 만큼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을 참고해서 전화로 예약, 쿠폰 제시 후 할인받아 보시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인센티브 혜택을 원했지만 누리집 못했던 분들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축제 현장 내 관광안내소와 축제재 대표소 등에서 쿠폰을 받을 수 있다"라며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알차게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 1박 2일 방문

### 진안홍삼유럽 교류새로운 장

진안군은 이탈리아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들이 1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안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진안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과 홍삼을 유럽 시장에 소개하고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단은 △움베르토 나르디 박사(바티칸 수도원) △강광배 교수(산조촌) △한현택 몬시뇰(Monsignor) 신부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삼 재배지와 홍삼 가공시설, 홍삼한방센터 등을 찾아 인삼재배에서 홍삼 가공·연구·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진안군이 홍삼 원물을 들고 바티칸을 찾으며 시작된 교류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논의를 토대로 바티칸 수도원은 홍삼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올해 5월 국제학회(SIME)에서 그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연구 결과로 개발된 생



활 제품을 진안군에 직접 선보이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안홍삼연구소에서는 '진안홍삼의 화장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전국 화장품 기업과 관내 인삼·홍삼 관련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진안홍삼을 활용한 연구 성과 △유

럽 진출 사례 △유효성분 기반 화장품 혁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짧은 일정이지만 진안의 자연과 정, 그리고 홍삼의 깊이를 충분히 느끼시길 바란다"며 "이번 만남이 양 기관의 우정과 협력의 씨앗이 되고, 진안홍삼의 유럽 진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 압류물품 7점 공매 추진

### 9월 1일~3일 도청 로비서 전시

진안군은 고액 채납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시계·가방·골프채 등 동산 7점을 전북특별자치도 합동 전자공매에 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매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7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물품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공매 물품을 확인 가능하

고,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 국민이 입찰 가능하다.

낙찰자는 최고가 입찰자가 되며, 낙찰 결과는 9월 4일에 발표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 맞춤형보충식품 패키지 월 2회배송

임실군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를 둔 가정으로 진행됐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을 확인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분유 등 맞춤형 보충 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받게 되며, 영양교육과 개인 맞춤형 영양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는다.

김대곤 보건소의료원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는 성장과 건강에 있어 영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2025 을지연습 실시... 위기대응 역량 강화

### 군·경·관·민 합동 대응훈련

장수군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박 4일간 장수군청 을지연습장에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는 장수군을 비롯해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를 통해 비상대비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전시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게 된다.

연습 첫날인 18일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이 진행돼 공무원 소집태세와 비상 전파 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한 전시 직제 편성을 통한 개인 임무 고지 및 전시 창설기구 훈련도 병

행해 실시했다.

이어 오는 20일까지 전시 상황에 따른 각 부서별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기관별 비상대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훈련 기간에는 상황별 '도상연습'과 '현안과제·예산편성 훈련', '8월 공서 대비 민방위훈련'이 이어진다.

최훈식 군수는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연습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연습의 중요성을 군민께서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운전 중 소방차나 구급차가 보이면 양보 운전을 통해 훈련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2025년 을지연습 총력

무주군이 "2025 을지연습"에 들어갔다. 훈련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로, 무주군 공무원들은 18일 새벽 불시 비상 상황 소집에 응소하는 등 첫날 훈련에 임했다.

을지연습은 4일간 무주군청 전시 종합상황실을 비롯한 재난안전상황실과 무주양수발전소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무주군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역 내 군·경·소방 등 관내 6개 기관이 전정파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제 대응 훈련에 동참한다.

무주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정세 변동, 북한의 군사훈련 및 핵·미사일 위협, 러·우 전쟁, 사이버·드론 등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비상 대응 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전시 직제 편성 및 기관 소산 이동, 전시 창설기구 설치·운영 등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행정과 대응 체계의 신속한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주민 참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무주소방서 주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연계해 진행된다. 21일에는 다양한 전쟁 양상을 반영한 기관장 주재 도상연습도 실시된다.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2026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수요조사 실시

장수군은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6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업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 사업은 농업기술 분야 11개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미래형 사과 다중과원 조성 시범 △친환경

삼채류 고실재배 기술지원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 지원 △고온기 사천대응 차광도포제 지원사업 등이다. 사전 수요조사 신청 및 접수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농업기술 시범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기술보급과 과수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신한은행, 방방이 어린이 여름방학교실 지원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지부장 조현경)는 신한SOL뱅크 동전기부서비스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신한은행으로부터 후원받아 군산시 내 방방이 어린이의 방학 중 돌봄공백 및 결식해소를 위한 'The 봄(더불어 봄) 여름방학교실'을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신한SOL뱅크 동전기부서비스를 통해 마련된 약 1천만원의 기금으로 군산시 내 2개 초등학교 24명의 아동을 지원했다. /정혜민 기자

## 독일 태권도단 남원 방문 "전통-현대 잇는 깊은 울림"

### 다채로운 문화 향유

지난 16일 독일 태권도단이 남원시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재 독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표락선 관장이 유년 시절을 남원에서 보낸 인연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라운슈바이크 등의 청년 태권도인들과 함께 남원을 찾았다. 이번 1박 2일 일정은 시립 김병중 미술관 관람을 시작으로, 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피오리움

미디어아트 체험, 광한루원에서의 한복 체험, 청아원 국악상설공연 창극 '소녀춘향' 관람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피오리움의 미디어아트 전시와 최근 개관한 청아원 창극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경험으로, 문화예술과 첨단기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남원의 매력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독일 태권도단 관계자는 "남원시의 다채로운 매력과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지난 16일 독일 태권도단이 남원시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사진=남원시>



### 완주군, 삼례시장서 아동·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원연대가 최근 삼례시장 일원에서 지역연대 회원,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완주군가족센터, 아동·여성 서비스 기관, 관계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캠페인을 실시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여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완주를 위해 지역연대, 서비스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 기자

## 박윤규 대성농협 조합장, 고창 '양심냉장고'에 생수 2천개 기부

### 폭염 속 주민들 갈증 해소

박윤규 고창 대성농협 조합장이 지난 14일 고창군 성송면에 '양심냉장고'에 사용해달라며 생수 2000개를 기부하며 시원한 나눔을 실천했다. 생수 기부는 폭염 속에 지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양심냉장고' 사업이 성송면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속에 진행됐다. 박윤규 대성농협 조합장은 "양심냉장고 사업은 단순히 주민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눔과 배려, 감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라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따뜻하고 정의 넘치는 사회가 되는데 작은 힘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 고산농협, 지역주민 맞춤형 물품 전달

완주 고산농협은 18일 고령농업인과 자녀가 있는 농업인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협재단의 지원을 받아 고령농업인의 활동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지역 교육여건을 향상 시키고자 마련한 것으로, 사랑의 나눔 물품(보행보조기, 우리살 농산물꾸러미, 무선이퍼 등 1천만원 상당)은 관내 고령농업인과 자녀가 있는 농업인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고산농협 송병철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 일대 거리 정화 활동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전주 지역 일대에서 '2025년 ESG 경영 활성화사업 제3차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역사회공헌활동은 재단을 비롯한 주위 지역 거리를 정화하는 '거리 정화 활동'으로 추진됐다.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환대를 위해 청결하고 긍정적인 도시 이

미지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재단의 전 직원은 18일 오전 8시부터, 구역을 구분하여 풍납문·전라감영로·재단 본관·전북예술회관 일대 거리를 청소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ESG 플로깅(plogging) 키트를 활용하여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명태 기자



### 부안해경, '등대직원'에 김병구 경위 선정

부안해양경찰서는 7월 '이달의 등대직원'으로 장비관리운영과 정비보급계장 김병구 경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료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원을 매월 한 명씩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7월 등대직원으로 선정된 김병구 경위는 △불용물품 무상양여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합정 장비 정비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비배움터'를 기획·운영하여 현장 직원들의 정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직무 전문성과 조직 기여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생덕 서장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직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김병구 경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간 존중과 협력이 빛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익산 여아들에 소녀 키트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지부(지부장 강민숙)는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저소득가정 여아지원을 위한 '소녀생각 KIT'을 전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소녀생각 KIT'은 입는 오버나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된 3개월 분량의 유기농 생리대, 구미 영양제, 여드름패치, 섬유향수 등으로 구성됐다. 전달된 '소녀생각 KIT'은 익산지역 저소득 가정 여아 2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 익산 성당면 '명가 함지박', 착한가게로 나눔 동참

익산시 성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명가 함지박'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명가 함지박은 정갈하고 푸짐한 음식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한식 음식점이다. 명가 함지박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게를 운영해 온 만큼,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게가 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제9회 한국대회 성황리 개최

진안군은 지난 14일 진안군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주관으로 제9회 한국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군의회위원장, 노인회 임원과 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기 결과, 남자팀은 백운면 분회가 우승, 마령면 분회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부귀면과 용담면 분회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여자팀은 상전면 분회가 우승, 마령면 분회가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동향면과 안전면 분회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더운 여름에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폭염 주의보 33°C**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35°C**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열사병** 고온 다습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경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여 붉은색으로 변함  
고열과 심한 두통, 식은땀, 탈진증상

**열사병** 태양볏 아래 오래 머무를 경우  
피부가 차갑고, 촉촉해지며 얼굴이 창백해짐  
무력감, 현기증, 두통증상

〈一事一言〉



한미관계 재정립 재촉하는 한미 관세협상(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미국에 대한 공포는,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하다는 패배주의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13척의 배만 가지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130척 넘는 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공미에 기초하는 미국에 대한 패배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하루빨리 공미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될 미국의 압박과 수탈을 막아낼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다변화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국 패권국가 미국에게 순종하면서 미국에 편승하는 길을 걸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극단적으로 맹종하면서 러시아, 중국 등과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켰다.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사 중국이 미국과 교역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자신감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미 수출과 경제협력은 줄이는 반면 러시아,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대한 수출과 경제협력은 늘리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없어도 괜찮도록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 브릭스 진영, 글로벌 사우스 등과 관계가 좋았다면 중국처럼 미국에 맞설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외에도 수출을 하거

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명 정부가 다변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를 극력 방해했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 회복 혹은 정상화다. 트럼프가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유연한 북한대표부를 통해 진서를 보내려 했지만 북은 그의 서신을 받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런 조건에서 만일 한국이 북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혹은 북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트럼프는 이제명 정부에게 북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매달리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남북 관계는 역사상 최악이다.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 리스크를 제거하고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남과 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하루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북중러 동맹과 한미일 동맹 간의 갈등과 충돌에 휩쓸려 들어갈 위험이 커지고 그 결과 북의 동맹국인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흡족해하면서 강도질을 그만둘까? 그렇지 않다. 트럼프는 상대방이 고분고분하게 나오면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벗겨 먹

으려고 달려드는 인간이다. 한국의 전래동화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오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호랑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의 지구촌 약탈로 미국의 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떡을 다 빼앗을 때까지 계속 수탈할 것이고 떡이 떨어지면 한국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서 이번의 한미 관세협상은,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단지 첫 발을 떤 것일 뿐이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좀 강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예측 관계를 재조정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계속 수탈당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설사 미국이 한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안보 차원에서는 도움을 주므로 참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국주의 종주국으로서의 미국의 본질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애써 부정하기 위한 헛소리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하소연해도 트럼프가 강도질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 온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위해서였다. 이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매달려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을 미국의 방

어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의미한다.

2025년 8월 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 외교 소식통이 2025년 7월 31일의 루비오-조현 회담에서 미국 국무부 장관 루비오가 '애치슨 라인'을 언급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의 우려대로 트럼프 정부는 중국, 북과의 전쟁이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한 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은 미국을 하늘처럼 믿고 미국에 의존하면서 추종하는 것이 한국의 붕괴와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 평등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한국이 미국에 대한 예측성을 잃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정, 국정과제와 정합성 높여 미래 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북도정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일부 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해 곁돌 우려가 크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도정의 재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우선, 정책 기조 불일치 문제가 크다. 정부는 AI,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RE100, 균형발전 등을 시대적 핵심축으로 제시했지만, 전북도정은 여전히 올림픽 유치에 명분으로 한 개별 SOC, 토목 중심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과거 개발시대 논리에 따른 접근으로, 국가 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는 것은 물론 도정 미래 전략에도 맞지 않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74개 비전 역시 미래 산업을 파편적으로 나열했을 뿐,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체계적 연계성은 부족하다.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취약하다. RE100 산업단지나 피지컬 AI 등 일부 사업은 국정과제 방향성과 부합하지만 전력망 확충·규제 특례·입지 조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화가 어렵다. 특히 새 정부가 분산형 전원과 지역 분권형 에너지 체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HVDC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정책 충돌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광역교통망, 새만금SOC 패키지 역시 시기와 자원 확보 대책이 미비하다면 결국 희망고

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 속에 도정을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RE100 산업단지와 피지컬 AI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산업 유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더 이상 관행적으로 제시되는 SOC 위주의 대형 사업에 매달려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물론 전북의 노력이 성공하려면 중앙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 완화, 재정 인프라 특례, 예타기준 완화,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 배치 등 현실적인 지원 없이는 지방이 자력으로 대규모 국정과제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중앙과 지방이 '호흡을 맞춘 동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이 진정한 미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정과제와 도정의 방향이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 둘째 그 방향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정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발상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은 도민의 선택과 참여로 완성될 것이다. 이제 전북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해졌다. 낡은 토목 중심의 개발 관성을 벗고 AI·에너지 전환·RE100 등 국가적 흐름과 발맞춘 전략적 도정 재편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미래 비전이며 전북을 희망의 땅으로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다.

**문 화 재 열 전**

**미륵사 석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불상
- 지정일 - 2002년 11월 15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정읍시 상신경1길 45-71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살아서 돌아온 자 / 박노해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눈보라와 불발과 폭풍우를  
다 뚫고 나온 강인한 진실만이  
향기로운 사과알로 붉게 빛나니  
그러니 다 맞아라  
눈을 뜨고 견뎌내라

고독하게 강인해라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  
음해와 비난은 한 철이다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대 아는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자는

그 존재만으로 저들의 공포인 것을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한 사람의 상처 난 곁마다  
붉은 사과알이 향기롭게 익어오느니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서울로 올라와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

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내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신문 !**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JBT



# 정읍시 시민소통실, 민원 해결 창구 넘어 행정 신뢰 높인다

## 직소민원 전담 처리 통해 현장시민 중심 시정 구현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 창구인 '시민소통실'을 운영하며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민선 8기 정읍시의 시정 구호인 '시장중심 으뜸정읍'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2023년 1월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시민소통실은 시청 1층에 위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일반 행정 사무실과는 달리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민원 접수부터 시장과의 직접 면담 요청, 개인 상담, 전화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통합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시민과 행정 간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 시민 불편 해결의 최전선, 직소민원 처리 성과

2023년 개소 이후 시민소통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680건으로 집계됐다. 방문 민원이 526건, 전화 상담 민원이 154건에 달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건설 분야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 104건, 산림·농축산 88건, 교통·환경 71건, 기타 일반민원 241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의 내용은 단순한 생활 불편부터 제도 개선 요구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민원이 주목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원금 관련 민원을 들 수 있다. 한 시민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금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시민소통실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예외조항을 신설해 해당 시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과 유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시의 권한이 아닌 민원 처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뢰를 쌓았다. 시 관할이 아닌 민원이라 하더라도 "관할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지 않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국가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던 복잡한 사안까지도 시민소통실이 중심이 돼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여름 가뭄이 심각했던 시기, 한 농민이 논에 물 공급을 요청한 민원을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민원이었으나, 시민소통실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인근 방죽 상태를 확인하고 양수기 대여·설치, 사용법 안내까지 세심하게 지원했다. 이 같은 현장 밀착형 적극 행정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소통실이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에 있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수동적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동적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행정은 민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지속 확대

시는 시민소통실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온라인 소통 창구인 '정읍시 소통방'을 통해 시민, 출향인, 관광객 등 누구나 쉽게 정책 제안과 토론, 설문과 투표를 통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통방에 등록된 제안이 1개월 내 50건 이상 공감을 받으면, 이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심사해 실제 정책이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심화하고 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정읍시의 주요 정책과 민원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기구다. 이를 통해 행정과 시민 간의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의 민원 처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업무 매뉴얼을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소통실은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닌, 시민과 행정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는 시민소통실을 중심으로 시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